

배포 일시	2022. 12. 22.(목)		
담당부서	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유경수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 고상룡 (044-201-4248)
	항공운항과	책임자	과 장 민풍식 (044-201-4259)
		담당자	사무관 황재갑 (044-201-4784)
	항공기술과	책임자	과 장 문석준 (044-201-4284)
		담당자	사무관 원정운 (044-201-4285)
	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	책임자	국 장 이호진 (032-740-2140)
		담당자	사무관 박태규 (032-740-2141)
보도일시	2022년 12월 23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2. 23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

- 경년 헬기 안전관리, 조종사 훈련 등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(산·학·연)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(TF)*를 발족하여 헬기 안전·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
- * 안전대책 TF : 업계, 학계, 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·운영('22.8.26일 ~)
- * 공청회 : 헬기 운영 관련기관(조달청, 소방청, 지자체, 산림청), 민간 전문가 및 헬기 업체 참여 공청회 실시 및 의견 수렴(12.15)

【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】

- ◇ **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**
 - ☞ 임차 헬기 계약전 적격성 평가 강화, 비행기록장치 장착, 감항검사 강화
- ◇ **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**
 - ☞ 헬기 업체별 안전도 등급화, 취약 업체 안전관리 강화
- ◇ **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**
 - ☞ 軍 경력 헬기 조종사 民 자격 취득요건 강화, 조종사 훈련 강화, 조종사 신체검사 강화
- ◇ **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**
 - ☞ 운영기관 안전관리자 지정, 비행규칙 위반 처벌 강화, 불법비행 강요 보고 의무화

□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 ①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 】

- (임차헬기 계약제도) 국가기관(조달청, 지자체 등)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 적격성 평가(현재 업체 경영상태)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·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예정이며,
 - 또한,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(나라장터)에 헬기 정보(현재 업체명, 모델명, 담수용량, 가격)를 추가(기령 등)할 예정이다.
- (헬기 비행기록장치 장착)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하여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에 비행기록장치(또는 대체장치)* 설치를 의무화하여 확인할 예정이다.
 - * 모든 헬기의 비행기록장치가 개발된 것이 아니므로, 조종실 비행데이터 등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대체장치로도 설치 운영하도록 함
 - ** 현행, 헬기 비행기록장치 장착 대상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09조) : 국제선을 운항 하고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최대이륙중량 3,175kg 초과하는 헬기
- (헬기 감항검사 주기 강화) 기령 40년 이상 헬기(민간 헬기 중 32% 해당)에 대하여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검사할 예정이다.

【 ②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】

- (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평가) 평균기령, 안전장애 발생률 등 안전지표*를 분석(연1회)하여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(1~4등급)할 예정이다.
 - * 안전지표 : 경년기 과다보유, 사고발생 이력, 항공안전장애 발생률 등
- (안전도 취약업체 관리강화)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하여는 항공안전 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.

- (헬기 감독인력 충원) 서울지방항공청에 헬기 안전팀을 신설('16년 9월)하여 운영 중(총 5명)에 있으나 점차적으로 헬기 감독인력 충원을 관계부처(행안부)와 적극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.

* 우선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전문위원 위촉하여 활용(감독업무 지원, 자문 등) 할 예정(현재 헬기 분야 민간전문가 모집 중, '22.12.~)

【 ③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】

- (자격 취득요건 강화) 군 경력 헬기 조종사(비행시간1,500시간 이상 보유자)가 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시 민간 헬기 특성화훈련과정(지정전문 교육기관 등)을 이수토록 자격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.

- (조종사 훈련 강화) 신입 헬기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에 받는 초기훈련(18시간)시 외부 인양물 훈련(5시간)을 포함토록 강화할 예정이다.

- (조종사 신체검사 강화)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할 예정이다.

* 민간헬기 조종사 167명중 60세 이상 101명(60%) 차지. 국가기관 조종사는 공무원 정년(60세)에 퇴사 후, 민간 헬기 업체로 대다수 재취업

【 ④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】

- (탑승인원 관리 강화) 관제기관에 신고한 헬기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등에 대하여 헬기 운영기관(지자체 등)에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,

- 관할 지방항공청 감독관은 헬기 운영기관(지자체 등)에 안전관리자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·수시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.

- 또한, 항공기 비행규칙(항공안전법 제67조)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처벌(현행 위반자 벌금 500만원 이하)도 강화할 예정이다.

- (항공안전 의무보고 신설) 고유업무 외에 불법비행 강요(미허가 인원탑승, 외유성 비행 등)시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“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 할 예정”이라면서,
 - “산·학·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하여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1 헬기등록 현황 : 총 206대로 민간 124대(61%), 국가기관 등 82대(39%)

구분	민간				국가기관				
	소형 운송	사용 사업	자가용	계	산림청	소방청		국립공원	계
						중앙	지자체		
대수	3	106	15	124	48	7	26	1	82
업체수	1	15	-	16	-	-	-	-	-

2 민간헬기 사용사업체 현황

순번	업체명	사용사업 등록일	조종사(명)	헬기현황(총 106대)		
				보유기종	댓수(대)	평균기령(년)
1	(주)홍익항공	1994.8.5.	17	AS-350	7	31.4
				BELL214	2	41.5
				BK117	2	31
				EC135	1	14
				H-369	1	43
2	(주)헬리코리아	1996.9.17.	44	AW109	2	4.5
				AW169	3	5.6
				BELL407	2	18.5
				BELL214	3	41.3
				BK117	1	21
				H-369	1	43
				KA-32	3	25.3
				S-76	2	20.5
3	(주)성준항공	1997.7.30.	3	BELL206	1	32
				R-44	1	12
4	(주)유아이헬리제트	1997.11.4.	16	AW109	3	6
				AW169	2	5
5	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	2004.3.24.	2	E-480	1	17
6	(주)세진항공	2004.7.7.	11	BELL206	1	31
				BO105	5	38.2
				S-76	5	35
7	(주)대진항공	2005.1.25.	6	KA-32	1	31
				AS-350	2	18
8	(주)에어팰리스	2008.10.	15	BK117	1	28
				S-61	4	48.7
				S-76	5	38.8
9	(주)더스카이	2009.12.11.	9	BELL206	2	42.5
				MI-2	3	39.3
				S-76	7	22.4
10	(주)에어로피스	2010.9.1.	14	S-61	4	46.5
				BK117	1	33
				AS-365	1	25
				MD-500	1	30
11	(주)유비에어	2012.12.17.	5	KA-32	2	33
12	(주)우리항공	2013.7.15.	8	S-61	1	48
				S-76	4	31.5
13	(주)트랜스헬리	2015.5.11.	7	S-58	6	50.8
14	글로리아항공(주)	2017.7.21.	14	EC-155	2	8
				S-76	5	32
15	(주)이엔비에어	2021.2.5.	9	AS-350	3	26.6
				KA-32	2	31.5